

도돌이표 속에 갇힌 한국 언론



글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40대 전업주부 M. M은 오전 6시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다. 남편과 고교생 딸을 위해 밥상을 차리면서 뉴스를 듣는 것이다. 남편과 아이가 출근·등교를 한 다음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눈을 TV를 떠나지 않는다.

지상파 뉴스 시간대가 지나가면 종합편성(중편) 채널로 옮겨간다. 역시 뉴스를 보기 위해서다. 이따금 스마트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면 손가락으로 클릭한다. 뉴스 속보다.

M은 뉴스에 중독돼 있다. 그녀는 “나도 왜 내가 온종일 뉴스를 보고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곤 해요”라고 말한다. “예능이나 드라마는 시들하고… 뉴스를 보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느낌을 떨치기 힘들어요.”

그녀에게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은 중편 채널이 생긴 뒤부터다. 온종일 뉴스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각양각색의 의견과 시각을 펴는 것이 흥미로웠다. 가끔은 변호사 패널

이 왜 정치 얘기를 하는지, 정치평론가와 연구소장들이 왜 사건 수사 얘기를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시나리오에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다.

세월호 침몰, 유병언 수사, 유병언 시신 발견…. 설 새 없이 이어지는 고강도 뉴스들은 M에게 ‘속보를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조바심을 갖게 만들었다. 새로운 뉴스가 없는지 궁금해 인터넷에 들어가 기사 검색을 할 때도 있다. 요즘은 하루를 사무실에서 보내는 남편보다 더 많은 뉴스를 꿰고 있는 듯하다.

일간지 부장급 기자 K. K는 출근길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타사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혹시 타사만 쓴 ‘단독’ 기사가 있나 싶어서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을 때는 인터넷 포털에서 사건의 핵심 키워드들을 검색한다.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땐 바로 후배들에게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시킨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들을 훑어본 뒤에도 손

길은 멈추지 않는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 들어가 여론 흐름을 체크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SNS의 관심이 폭증할 때는 관련 기사를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이다. 1, 2년 전까지 뉴스가 SNS의 흐름을 좌우했다면 최근 들어선 SNS가 뉴스 흐름을 좌우하는 현상이 부쩍 심해지고 있다.

그는 “언론과 여론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한다. “과거엔 언론이 사태 전개를 리드(lead)했어요. 이제는 여론이 언론을 리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판단해 소홀히 취급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돼요. SNS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 그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된 K의 하루는 뉴스와 뉴스의 연속이다. ‘늘 깨어있으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순간들이다.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새로운 팩트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온다. 더욱이 종편들의 메인 뉴스 시간대가 오후 9시~10시 이후로 조정되면서 귀가시간도 늦춰지고 있다. ‘단독’ 꼬리표가 붙은 기사가 나오면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K는 최근 검찰 간부에게서 들은 말이 떠오른다. “수사 내용과 방향에 대해 말들도 많고, 예전 같으면 걸러졌을 미확인 정보들이 튀어나오고… 정말 수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뉴스 수요자-공급자 관계인 M과 K의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강박증’이다. 뉴스의 입구 쪽에 서 있는 K도, 출구 쪽에 있는 M도 불안감에 갇혀 있다. 무엇이 바람직한 기사

인지, 무엇이 나쁜 기사인지 뉴스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것(News)이면 그 무엇이든 보도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오른다. 다음 날이면 잊힐 뉴스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악순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최근 번역돼 출간된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의 『뉴스의 시대』를 보자.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의 『뉴스의 시대』 표지
(출처 : 네이버 책[book.naver.com])

“어쩌서 우리 대중은 계속 뉴스를 확인하는 걸까? 이는 공포와 큰 관련이 있다. 뉴스에서 눈을 떼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습관

처럼 불안이 축적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이 쉽게 잘못되는지, 또 순식간에 벌어지는지 안다. ... 오늘날 우리가 뉴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장소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귀들은 흡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집단불안증을 묘파하고 있는 것 같다. 보통은 뉴스의 시대가 갖는 역기능을 이렇게 지적한다.

“권력을 공고히 하길 소망하는 당대의 독재자는 뉴스 통제 같은, 눈에 뵈지 보이는 사악한 짓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 그 또는 그녀는 언론으로 하여금 닥치는 대로 단신을 흘려보내게만 하면 된다. 뉴스의 가짓수는 엄청나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뉴스 속 의제를 지속적으로 바꾸며... 현 상태는 뉴스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흘려넘치게 할 때 오래도록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분야별 기사의 문제점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정치 뉴스 : 사람들 대다수를 혼란스럽고, 따분하고, 정신 사납게 만들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②국제 뉴스 : 비밀상적인 사건만 전달함으로써 공감할 수 없게 만든다. ③경제 뉴스 : 경제지표들을 나열하면서 그 지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④재난 뉴스 : 우리가 직접 대면해야 할 진실한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자, 이 지적에서 한국 언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정치 뉴스가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면에 집

중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정당들이 수없이 당 이름을 바꿔도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 데는 언론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독자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는 법조 기사와 경제 뉴스, ‘OO명 사망’에서 ‘책임자 처벌’로 곧바로 이어지는 재난 뉴스도 다르지 않다.

보통이 말한 “뉴스를 흘려넘치게 하는” 현상엔 오히려 가속이 붙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 국정원 댓글 사건 → NLL 회의록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 검찰총장 혼외자 → 국정원 수사 외압 논란 →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 세월호 침몰 →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 윤 일병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들어 숨가쁘게 이슈들이 거듭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매듭지어진 것은 없다. 미봉됐거나 그냥 넘어갔을 뿐이다.

중요한 건 언론의 기능이다. 이슈들이 끊어 넘치는 상황에서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배경과 맥락을 분석해 전체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뉴스 전달에 급급하다. 배경과 맥락을 들여다보는 대신 ‘단독’, ‘속보’ 기사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단독

(單獨)’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단독의 사전적 뜻은 ‘단 하나’이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언론사에서 먼저 기사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단독은 ‘특종(特種·특정 언론사에서만 보도한 중요한 기사)’과 달리 중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가치 중립적이다. 기사의 가치나 중요성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대개 ‘충격증언’, ‘충격고백’ 등과 함께 뉴스 소비자들을 ‘뉘시질’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종편 출범과 함께 시작된 ‘패널 저널리즘’은 한국 언론의 가벼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일부 종편 채널이 ‘뉴스특보’ 문패 아래 보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면서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둘러싼 온갖 왈가왈부들이 까발려지고 있다. 인터넷 기사에 붙어 있던 댓글들이 패널들의 입을 통해 ‘공론’이란 지위를 얻게 되는 셈이다. 팩트 하나 하나가 클로즈업되고 되새김질 되면서 가십거리로 재가공된다.

만약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라. 당신의 잘못이 도마에 올라 날날이 분석되고, 표정과 말과 의도가 해부 된다면 끔찍한 일 아닌가. 가정 안에서 자상한 아버지·남편, 조직 안에서 선량한 선후배였을 한 인간은 사라지고

낮선 ‘괴물’만 남게 된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회적 징벌이다.

더 큰 문제는 악화(惡貨·나쁜 돈)가 양화(良貨·좋은 돈)를 구축(驅逐·몰아냄)한다는 그레이섬의 법칙이 한국 언론에 관철되고 있다는 데 있다. ‘나쁜 저널리즘’이 ‘좋은 저널리즘’이 자리 잡을 공간까지 빼앗고 있다. 그 결과 특정사건, 특정인을 예외적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나 자신도 저런 잘못을 저지러 수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는 반성, 어떤 구조가 부패와 불법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각성은 후순위로 밀린다.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대안,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는 2차적인 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한국 언론이 하는 일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 처형을 명령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Pontior Pilatos)처럼 더럽혀진 손을 물로 씻어내며 “내 손은 깨끗하다”고 되뇌는 것만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의 손을 직시하는 것, ‘좋은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잊지 않는 것, 패닉보다 팩트를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한국 언론이 ‘단독’과 ‘속보’의 끝없는 도돌이표 속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